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1.40원 하락한 1,219.50원에 마감
------	---------------------------------

9일 달러-원 환율은 실업보험청구자수 발표 경계 속 미국의 봉쇄정책 완화 기대감에 전 거래일 대비 1.40원 하락한 1,219.5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214.5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이후 환율은 미국과 유럽의 봉쇄정책 완화 기대감에 1,210원 초중반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저가매수 및 미 실업보험청구자수 발표 경계에 환율이 반등하며 1,219.5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216.4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19.14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14.50	1221.80	1212.30	1219.50	1216.4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22.51	1124.10	1111.61	1123.89	
금일 전망	연준, 2조3천억 달러 지원대책 발표 ... 1,210원 초반중심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방침에 따른 달러약세를 반영하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7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219.50원) 대비 9.05원 하락한 1,209.7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제시했다. 연준은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지원대책을 통해 기업대출, 지방정부 지원 및 정크본드 매입까지 시사하였으며,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강력하고, 선제적이며 공격적인”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일 환율은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 따른 달러약세를 반영하며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일 발표된 미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가 660만명을 상회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기침체우려는 하단을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OPEC+ 회의에서 5~6월 동안 1천만 배럴 감산을 결정하였음에도 유가가 하락한 점도 환율에 상승압력을 주는 요인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07.00 ~ 1215.00 원
체크포인트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782.86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9.05원 ↓

■ 美 다우지수 : 23719.37, +285.8p(+1.2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3.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44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